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0. No. 2, 2009

정신분열증 청년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효과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I

박수정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the Art Therapy through the Self Ex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by a Schizophrenic Adolescent I

Soo-jung Park
Dept. of Art Therapy,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article aims to find how effective the art therapy is on the improvement of the self ex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others, as medium for verbal communica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Methods :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one schizophrenic patient who had been treated with drugs for five years in W university hospital, as well as counseled by an art therapy oo counsel office in J city. The art therapy had been performed the total 25 sessions, fifty minute per session, one session per week, from November 28 in 2008 to April 27 in 2009. The test was by HTP.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test of HTP, the subject showed a little lethargy, painting very simple house-shaped figures and too simple rectangular figures corresponding to those painted by 4 or 5-year-old children. In the post-test, however, the structures of houses were described concretely and three-dimensionally, and the descriptions of people were changed into concrete figure, by which we could see the improvement effect on the self ex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투고일 : 5/11 수정일 : 5/30 채택일 : 6/13
교신저자 : 박수정, 전북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덕천하이트 아파트 103동1204호
Tel : 010-3649-4259, E-mail : soozung@hanmail.net

Second, in the earlier stage, there was little verbal self expression, and little self respect, staring into space and showing passive attitude without positive assertion and expression. In the later stage, however, there were positive assertion and expression, even showing sense of humor.

Lastly, in the earlier stage, there were few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later stage, however, eye contact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increased during conversation and in the art work process,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rt therapy can be effective on improvement of the self express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others, as medium for verbal communica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Key Words :

Art therapy, Schizophrenic patients, Yijeongbyeonki therapy(移精變氣療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만성 정신장애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유병기간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역할수행기능의 손상이 있어 어느 정도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라고 정의된다[1].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가는 정신분열병의 치료 방법은 환자의 증상완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재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만성적인 정신장애자의 기능력을 높여주고 전문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혹은 생활공간 내에서 성공적으로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2-4] 그것이 진정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치료방법일 것이다.

정신분열병에서 치료목표는 일차적으로 증상의 경감이나 해소, 재발의 방지에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대체적으로 초기 임상현장에서 주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는다. 일반 정서문제의 내담자보다 더 심각한 정신분열 환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신분열 환자의 의사소통 장애는 그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저조하거나 결여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분열증의 기본증상에는 사고 연상의 장애, 둔마된 감정, 자폐증, 양가감정 등이 있으며, 부수적 증상으로 망상, 환각, 착각, 거절증, 혼미 등이 있는데, 이처럼 정신분열병이란 지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가 다각도로 혼합되어 현실관계와 개념형성에 기본적인 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증적 반응군이라 정의한다[5].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인간관계에 심한 위축을 나타내고 자폐적 사고로 자신의 환상세계와 백일몽에 빠져 타인과 외계에 대한 흥미상실과 현실과의 접촉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질병의 특성으로 어느 정도 까지는 증상정도에 따라 잠재된 병리적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낼 의도적 치료 교육적 측면이 필요하다.

그 한 방법으로서 우선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단서를 잡기위해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의식적 표현이든 무의식적 표현이든 표현을 하게 하여 표현된 것에 대한 설명을 유도함으로써 언어적 자극을 시도하여 점점 많이 자신을 표현해내도록 도울 수 있다[6]. 특히 대화에 일관성이 없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매우 소극적인 정신분열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환자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는 저항을 덜 느끼면서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7].

미술은 자신의 감정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지지 적이고 수용적인 좋은 방법이다. 특히 언어로 구체화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감정들을 형태화시켜 나타낸다.

한편 한의학적으로 정신분열병은 癲狂의 범부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8] 정신약물학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한방요법을 병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移精變氣요법은 일명 "移情移性요법" 이라고도 하는데, 의사가 각종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정신상태를 변화시키고, 병리 상태를 조절하여 질병회복을 촉진하는 일종의 심리치료 방법이다[9]. 이는 특히 심인성인 질환의 경우에 주로 응용[10]이 가능하며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정신분열 등의 질환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술치료는 미술을 도입한 것으로 내담자가 흥미를 지니는 다양한 매체와 자유로운 미술방법을 통해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적 미술매체와 행위로 표현하여 언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킨다. 미술치료는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인식, 자기수용이 가능하며 사고나 이해를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이 매우 부족한 정신분열증 청년에게 移精變氣요법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미술활동을 적용하여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정신분열증 청년에게 자유화 중심의 미술치료가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의 상승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술치료○○상담연구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정신분열증 청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환자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HTP그림투사검사에서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술활동 과정 중, 청년의 자기표현을 향상시키는가?

셋째, 미술활동 과정 중, 청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사례의 대상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임상진단을 받고 I시의 W대학병원 정신과에 2003년에 한 달간 입원을 했었고 현재는 매일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한 약물을 매일 복용중이다.

1) 환자의 생육사 및 가족배경,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은 모두 생존하시고 J시 출신이다.

환자의 아버지는 외아들이고 성장 과정 중에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환자는 어려서 학령전후에 매우 건강했고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주로 시장에서 놀았는데 아이들과 잘 어울렸으나 말수가 몹시 적었고 남이 싫어하거나 부담되는 말은 할 줄 몰랐다고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 중간에 성적이 하락하여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지 못하고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W대학으로 입학을 하며 서서히 아버지와 갈등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와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며 남동생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사이가 각별해보였다.

2) 입원사유

W대학 2학년 때 신학대학을 진학하겠다고 하여 아버지에게 몹시 구타를 당하고 집을 나와 경기도의 B시에 s신학대학을 다니며 교우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 달 정도 교제하던 동 대학의 여학생과 헤어지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다. 자취방에서만 몇 달을 지내다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과거의 일들을 거의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하숙집 주인이 아버지에게 연락하였다. 이 후 아버지에게 이끌려 낙향을 하고 2002년 11월 25일 W대학병원에서 입원당시 망상(delusion), 기묘한 행동(bizarre behavior), 충동(impulsivity)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분열병으로 판명 받은 후 한 달간 W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후 5년간 W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약 medication zyprexa 20mg, risperdal 4mg을 받아 복용하며, 집에서 거의 매일 잠자고 인터넷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3) 초기 면담 시 환자상태

치료사가 왜 아팠었느냐고 물으니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만 대답했다. 추리닝차림에 45도 각도로 허공을 쳐다보며 치료사와 눈 마주치기를 꺼려했다. 치료실에 들어오기 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바지에 물기가 묻어 있곤 했다.

환자는 퇴원 후 5년간 W병원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며 집에서 거의 매일 잠자고 인터넷을 하며 지낸다고 했다.

신체행동상의 특징은 몸이 몹시 무기력해 보였으며,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 말할 때 억양의 변화가 거의 없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산만하게 말했다.

외모나 위생상태는 비교적 지저분해보이는 편이었으며, 사고과정이나 정서반응은 미숙하지만 노력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었으며, 인지기능검사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측정도구–HTP

집-나무-사람검사 (House-Tree-Person: HTP)는 집, 나무, 사람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는 투사법 검사이다. 집 그림은 수검자의 현실감을 의미하며 우리 생활의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내며 가정적 자아상을, 나무그림은 수검자의 개인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고 생활과 자기 성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실현적 자아상을, 사람 그림은 신체적 자아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서와 자아에 대한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내담자가 크레파스로 4절지에 그리기를 원해 3회기에 걸쳐 작업한 결과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1) 치료기간 및 치료 장소

연구대상은 J시에 위치한 미술치료○○상담연구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대학병원정신과에서 5년째 약물을 복용중인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 1명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2008년도 11월28일부터 2009년도 5월 18일까지 주1회 50분으로 총25회기실시 하였고, HTP를 실시하여 사

전 사후검사를 하였다.

2) 미술치료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매 회기마다 도입단계-활동단계-토론단계로 진행되었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초기와 중기에는 비구조화 하였고, 후기에는 사회와의 의사소통과 통합을 고려하여 구조화하여 만다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총 25회기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단계(1-7회기)에는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 갈등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였다. 중기단계(8-20회기)에는 자신을 바로알고 소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도록 도우며 환자의 내면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찰을 유도하였다. 후기단계(21-25회기)에는 20대 여성 보조치료사 2명과 함께 작업하며 이성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며, 만다라 안에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에너지의 통합을 유도하였다.

Table I. Art Therapy Program

회기	단계	주제	활동내용	목적
1	초기	HTP중 집그리기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 위에 집을 그림.	사전검사
2		HTP중 나무그리기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위에 나무를 그림	
3		HTP중 사람그리기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위에 사람을 그림	
4		자유화	크래파스로4절 켄트지 위에 자유로이 표현	자유로운 표현유도를 통한 정신 이완
5		자유화		
6		자유화		
7	중기	LMT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위에 풍경구성법(LMT)을 표현함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능력을 평가 하고자함.
8		자유화	크래파스로4절 켄트지 위에 자유로이 표현	자유로운 표현유도를 통한 정신 이완
9		자유화		
10		자유화	러브를 크레파스로 크게 그리며 외롭다고 했다.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표현
11		자유화	크래파스로4절 켄트지 위에 자유로이 표현	관심있어하는 것을 자유로이 표현하게 하기 위함(자유로운 심상표현)
12		자유화		
13		자유롭게 만들기	색종이를 접거나 오려서 만듬.	
14		자유화	크래파스로4절 켄트지 위에 자유로이 표현	
15		자유화		
16		자유화		
17		인물화	초기에 비해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어지게 표현하였다.	인물화 간편검사.
18		LMT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위에 풍경구성법(LMT)을 표현함.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능력을 평가 하고자함.
19		자유화 (꼴라쥬)	잡지를 켄트지위에 풀로 오려붙여 표현.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표현
20		자유롭게 만들기	손에 묻지 않는 칼라 점토로 자유로이 만들게 했다.	자신을 성찰하게 함
21	후기	만다라	켄트지 전지위에 보조치료사 A,B와 함께 원안에 그림을 그리도록 함. 상호작용의 효과와 과 규칙을 인식시키기 위함.	보조치료사 2명과 함께 작업하며 서로 주고받는 역동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22		만다라		보조치료사 2명과 함께 작업하며 서로 주고받는 역동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23		HTP중 집그리기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 위에 집을 그림.	사후검사
24		HTP중 나무그리기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위에 나무를 그림	
25		HTP중 사람그리기	크래파스로 4절 켄트지위에 사람을 그림	

4. 미술치료 특정회기 분석

1) 초기(1-7회기)



Fig. 1. 1회기 HTP 중 집그리기.

집은 주로 내면의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를 의미하는데 벽이 빨갛게 칠해져있다. 이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며 벽면이 그리 단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아의 강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지붕은 내적인 공상 활동을 뜻하는데 지붕에 줄이 그어져 기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강박적인 성향과 공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문과 창문을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 세상과의 소통을 하고자하는 내담자의 마음이 엿보인다.

집과 지면이 약간 떨어져 묘사되었는데 이는 현실과의 접촉에서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면이어서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또 다른 내담자 자신의 상징이라 여겨지는데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어둡고 우울하며 좌절감이 느껴지며 특히 자동차 창문이 까맣게 칠해져 환자의 내면을 스스로 감추고 싶어 하고 또한 세상을 잘 관찰하는 마음의 창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바탕화면에 눈이 내리는데 이것 역시 불안감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Fig. 2. 2회기 HTP 중 나무그리기.

나무는 뿌리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져 있는데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과 과도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가 150년 정도라고 했는데 내적인 미성숙을 부인하고 과시적인 태도를 통해 보상받고자한다. 주로 뿌리의 묘사는 과거의 일이나 가족관계의 문제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불편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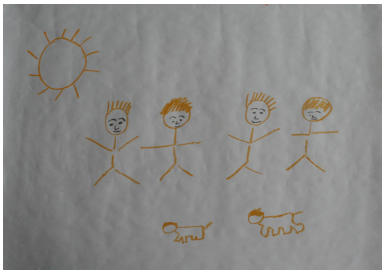


Fig. 3. 3회기 HTP 중 사람그리기.

사람은 지나치게 생략하여 묘사되어 졌는데 이는 사고 장애, 신경학적 장애일 때 그러하다. 머리카락이 바짝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긴장한편이며, 애완견의 모습이 지나치게 의인화되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채우지 못하는 사랑을 애완견을 통해 채우는 것으로 여겨진다.

치 : 누구예요? 가족들 이예요?

소 : 아니요. 그냥 사람들이요.

환자는 자신의 가족을 묘사하길 꺼려했다.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숨을 자주 쉬고 말이 더 느려지며 매우 천천히 이야기해 나갔다.

너무 성격이 강하세요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Fig. 4. 7회기 LMT.

추리닝 바지와 파카차림으로 치료실에 들어섰다. 치료사에게 인사를 하고 바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다시 치료실 문을 나섰다. 5분정도 후 다시 돌아와 차를 한잔 마시겠다고 했다.

치 : 자, 오늘은 풍경화를 한번 그려 볼 까요?

소 : 그러죠 선생님

치 : 자, 그럼 종이 위에 강을 그려 보시구요, 산을 그리시구요, 밭을 그려 보세요. 길을 그려보세요. 집을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세요. 꽃도 그려보세요. 생각나는 동물도 그려보세요.

소 : 생각이 안나요

치 : 아, 그러면 돌도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뭐 더 그려보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소 : 아니요. 종이가 꽉 찼어요.

화면 위쪽에 강을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조약돌을 그려 넣었는데, 자신의 인생 흐름에서 조약돌은 작은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우울함과 불안감을 구름으로 표현한 듯 보였는데, 연두빛깔로 색칠을 하여 그리 심한 편은 아니다. 나무뿌리의 모양이 초기 HTP검사 때처럼 강조되어 그려져 있는데, 여전히 불안감과 과다하게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엿보이는데, 이는 환자의 아버지와 관련된 불편한 감정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꽃을 7송이나 그렸는데, 행복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환자의 심정이 표현되었다.

2) 중기(8-20회기)



Fig. 5. 10회기 자유화.

치료사가 전지 캔트지 위에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였는데, 한번에 거의 동그라미를 그려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LOVE라고 크게 글씨를 쓴 후 테두리 쪽에 LOVE라고 쓴 작은 하트모양을 10개나 그려 넣어 장식적인 효과를 더했다. 그리고 환자는 오늘은 그림을 그만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주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을 드러냈었으나, 오늘 회기에서는 아버지도 역시 약하고 불쌍하다고 하였다.

치 : (환자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많이 건강해지셨네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니까

소 :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치 :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극복하실 수 있어 제가 기쁘네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답니다.

소 :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치 : 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소 : (허공을 쳐다보며 약간의 미소)

치 : 아버지를 이해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는

희망이 보이네요.

소 : 가끔씩 외로워요

치 : 정말 기쁘네요. 소○○의 내면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네요.

소 : 그런건가요?

치 : 그럼요. 정말 희망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절대 소○○을 버리시지 않을거에요. 그것도 하나님일(신학대학원을 다님)하다가 아프신 것이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거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소 : 기도는 맨날 하죠. 집에서, 혼자서

치 : 이제는 교회에 나가셔서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시 인간관계를 유도)

소 : 생각해볼께요. (약간 머뭇거리며 차를 한모금 마셨다.)

치 : (환자의 눈치를 살피며)오늘은 그만 할까요?

소 : 네, 안녕히계십시오.(바로 문을 나섰다)

교회에 나가보라는 치료사의 권유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듯 했다. 아직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두려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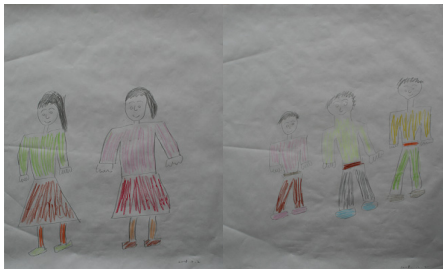


Fig. 6. 17회기 인물화.

미술치료 프로그램 초기 HTP에서 사람을 막대사람(졸라맨)처럼 묘사했었는데, 이제는 제법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여자한명 남자한명을 그리라고 했는데, 치료사의 지시사항에 잘 따르지 않고 여자 두 명 남자 세 명을 그려 넣었다.

치 : 누구세요? 가족이에요?

소 : 아니요. 그냥 사람이에요.

아직도 가족화 그리기를 꺼려하고 인간관계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냥 사람들을 표현한 듯하다. 이것은 일종의 자신 내면의 불안감과 두려움의 방어기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많은 부분 용서했다고는 하나 내면 깊숙이 친밀감 형성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치료사가 매회기 마다 환자의 복장에 대해 부드럽게 지적하는데 여전히 추리닝 바지가 편하다며 추리닝바지에 파카차림을 고집하고 있다.



Fig. 7. 18회기 LMT.

추리닝에 파카차림으로 치료실에 들어섰지만, 오늘은 깨끗하고 말쑥해 보이는 옷차림 이었다. 얼굴의 안색이 밝아졌으며, 금방 목욕을 하고 온 듯한 모습이었다.

치 : 어,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목욕탕 다녀오셨어요?

소 : (약간 부끄러워하며)네

치 : 오늘 너무 멋져 보여요. 자, 오늘은 풍경화를 한번 그려 볼 까요?

소 : 그러죠 선생님 (밝게 대답했다)

치 : 자, 그럼 종이 위에 강을 그려 보시구요, 산을 그리시구요, 밭을 그려 보세요. 길을 그려보세요. 집을 그려보세요. 나무를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려보세요. 꽃도 그려보세요. 생각나는 동물도 그려보세요.

소 :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풍경화를 그렸다)

사람이 종이의 중간정도에 자리하고 있어 환

자의 자기 존재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집도 초기 HTP에서 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붕에 기와가 사라져 강박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지면에서 현관문으로 연결된 곳에 비스듬하게 발판을 그려 넣어 집안에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산 위에 코끼리가 있고, 산 위 쪽으로 밭을 그려 넣었는데, 환자는 산 뒤쪽의 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매우 어색한편이고 조화롭지 않아 보이는데, 환자의 문제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Fig. 8. 19회기 자유화(꼴라쥬).

내담자는 추리닝바지에 파카차림을 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치료실에 들어왔다. 이제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꼴라쥬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유명 연예인의 활짝 웃는 단아한 모습을 붙였으며, 질주하는 자동차의 속력이 내담자의 에너지속도로 상징화되어 표현 되었다.



Fig. 9. 20회기 자유롭게 만들기.

소○○은 가운데 J는 Jesus 예수님이고, M은 나 (my)이고 Y (you)는 별 모양은 하늘의 별처럼 다시 빛나고 싶다고 하며, 점토판 위에 세계의 별을 배치하였다. 이는 교회의 삼위일체를 상징해 보이는 듯 매우 깔끔한 모습이다. 소○○환자가 신의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이며 다시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3) 후기(21-25회기)



Fig. 10. 21회기 집단만다라.

보조치료사 A와B가 함께 내담자와 집단 만다라 작업을 시작하였다.

보조치료사A는 내향적인 성격에 부드러운 편이며 꼼꼼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해나가는 스타일이며, 가족관계 또한 화목하며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였다.

보조치료사B는 외향적이며 모험심이 강하고 독창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제껏 안정적이고 편안하기만 했던 치료실 분위기와는 다르게 긴장감과 활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회기가 시작되었다. 원 안에 그리는 것만 으로도 회복과 이완 그리고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퀴글 놀이를 가미한 집단 만다라 작업이 이루어졌다. 치료시간 내내 세 사람 모두가 만다라 작업에 집중하며 서로의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보조치료사들이 그린 과일을 보며 자신도 수박을 그렸으며, 보조치료사들도 소○○의 행성

의 영향을 받아 보조치료사A는 우주선을 그렸고, 보조치료사B는 소○○의 영역에 과감하게 접근하여 집단원들의 활기찬 에너지 역동을 유도하였다.



Fig. 11. 22회기 집단만다라.

소○○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차림에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치료실에 들어섰다. 그는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느라고 손에 페인트가 묻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해 소○○가 돌아보며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치료사가 잠시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조치료사들에게 나이는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디인지, 과는 무엇이고, 무엇을 배우고, 흥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여 진다.

무척이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으며, 만다라 그림 속의 자신의 집도 지면에 안정적으로 닿아 있어서, 현실 감각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집 뒤쪽으로 무지개색의 경계가 지나치게 분명하여 외부 접촉에 대한 저항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결과

1. HTP의 사전, 사후검사결과

Table II. HTP의 사전, 사후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그림		
형식	* 집은 단면으로 표현되고 지붕에 기와가 그려져 있고 외벽이 붉은색으로 칠해져있으며 자동차가 검정색인데 창문조차도 검게 칠해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 나무는 튼튼하고 열매도 많이 달려 건강해 보이나 뿌리의 부분이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되어져 있다. * 사람을 막대기 모양 인물상처럼 간편하게 선으로만 그려 표현이 매우 미숙하다. 태양의 표현 또한 눈에 띈다.	* 집은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나 종이로 만든 집처럼 너무 약해 바람이 불면 날아 갈듯하다. 그리고 집과 지면이 사전검사와 달리 맞닿아 있다. 지붕을 그리며 기와를 그렸으나 모두 색칠을 하여 감춰 버렸다. 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새의 관점을 하고 있다. * 나무는 여전히 튼튼하고 열매도 많고 가기나무가 분리되어 각각 묘사되어져있으나 나무 뿌리가 여전히 많이 묘사되어져 있다. *사람은 완전한 형상으로 묘사 되어졌는데 어깨가 일직선으로 묘사되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 해석	* 집은 주로 내면의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를 의미하는데 벽이 빨갛게 칠해져있다. 이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며 벽면이 그리 단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아의 강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지붕은 내적인 공상 활동을 뜻하는데 지붕에 줄이 그어져 기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강박적인 성향과 공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문과 창문을 크게 그린 것으로 보아 세상과의 소통을 하고자하는 내담자의 마음이 엿보인다. 집과 지면이 약간 떨어져 묘사되었는데 이는 현실과의 접촉에서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면이어서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또 다른 내담자 자신의 상징이라 여겨지는데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어둡고 우울하며 좌절감이 느껴지며 특히 자동차 창문이 까맣게 칠해져 환자의 내면을 스스로 감추고 싶어하고 또한 세상을 잘 관찰하는 마음의 창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바탕화면에 눈이 내리는데 이것 역시 불안감의 표현이라 여겨진다. * 나무는 뿌리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져 있는데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과 과도 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무의 나이가 150년 정도라고 했는데 내적인 미성숙을 부인하고 과시적인 태도를 통해 보상받고자한다. 주로 뿌리의 묘사는 과거의 일이나 가족관계의 문제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불편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은 지나치게 생략하여 묘사되어 졌는데 이는 사고장애, 신경학적 장애일 때 그러하다. 머리카락이 바짝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긴장한편이며, 애완견의 모습이 지나치게 의인화되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채우지 못하는 사랑을 애완견을 통해 채우는 것으로 여겨진다. 강력한 아버지상을 태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 집은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집의 강도는 자아의 강도라 여겨지며 지붕을 그렸다가 밤색으로 덮어 그리는 것은 불안한 환자의 머릿속을 뜻한다. 지면과 집이 맞닿아있는 것은 현실 검증력이 생겨났음을 의미하나,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위에서 바라보는 새의 관점인지라 규범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보상적 양가감정이 담겨져 있는 듯 보인다. * 나무는 여전히 뿌리를 강조하여 묘사되었으나 나무가 각각 떨어져 묘사되어 자립의 의지가 엿보이며, 사전에는 뿌리부분이 땅에 잘 박혀 있는 듯 보여 진다. 나무의 나이는 50년 정도라고 했다. 이 역시 사전에 비해 현실감각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사전 HTP에 비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사전에 없던 신발이 정확하게 알맞은 크기로 표현되어 현실감각이 매우 좋아졌으며 손가락도 그려져 있으며, 사람들의 의상도 선명한 색깔로 잘 묘사되어져 있다. 소ㅇㅇ은 왼쪽에 연두색 상의를 입은 인물부터 묘사하여 오른쪽으로 그려나갔다. 자신의 의상만 녹색계열로 묘사되고 다른 사람들은 원색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아직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억제하는 소ㅇㅇ 자신을 상징화 했다. 사람들의 어깨가 일직선으로 묘사된 점이 특이한데 이는 강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을 묘사 할 때 머리부분을 맨 나중에 묘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지적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치료사가 누구냐고 묻자 가족 이예요 라고 답했다. 이는 가족을 수용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왼쪽부터 소ㅇㅇ, 남동생, 어머니, 아버지 순서로 묘사되어 있는데 가정의 주도권은 남동생과 어머니가 가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둘은 에너지 넘치는 빨강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우 활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남동생은 작년에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의 아내는 HTP사후검사에서도 묘사되지 않았다. 이것은 남동생을 독차지하고 싶은 소ㅇㅇ의 질투감정이 드러나 보인다.

2. 미술치료과정에서 자기표현의 변화

미술치료과정에서 자기표현 변화를 비교해보면 자기표현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III. 자기표현의 변화

내용	초기(1-7회기)	중기(8-20회기)	후기(21-25회기)
행동적 표현	*. 치료사와 대화 도중에 다리를 자주 떨음. *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하며 사람들이 두려워 날 수가 없다고 했다. * 산만한 편이며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술치료 회기 도중 3-4차례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 치료사와 대화 도중에 다리를 가끔 떨음. * 신학서적이나 전문교양서적을 가져와 함께 토론해보자고 치료사에게 말함.	* 표정이 밝아지고 환하게 자주 웃으며 소리내어 껄걸 웃기도 한다. * 후기 HTP에서는 필압이 더욱 강해지고 색이 선명하며 구도가 안정되어 그림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 복장이 단정해지고 추리닝은 더 이상 착용하지 않음.
언어적 표현	* 산만한 편이며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며 했다. * 부모님보다 동생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함.	* 약을 주리고 싶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함. *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함. * 다시 회복되어 사회봉사를 하며 살 싶다고 했다.	* 보조치료사들의 만다라 작업 이미지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함.

3. 미술치료과정에서 상호작용의 변화

미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변화를 비교해 보면 상호작용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Ⅳ. 상호작용의 변화

내용	초기(1-7회기)	중기(8-20회기)	후기(21-25회기)
상호작용	* 거의 외부와 접촉을 끊고 집에서 혼자 지냄. * 사람과의 접촉보다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과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함. * 주변상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음. * 잘 씻지 않음. * 아버지와 거의 대화하지 않고 어머니와 필요한 용건만을 이야기 한다고 함	* 등산을 다니며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했다고 함.-주변 지인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 * 교회에 다시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 치료사와의 대화량이 늘었다. * 아버지와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	* 집단 만다라 시간에 보조치료사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함께 웃기도 한다. * 집단 만다라작업을 할때 보조치료사들의 그림영역에 들어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보조치료사 A는 내향적이고 B는 외향적인데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 주 치료사가 회기도중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보조치료사들에게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다니느냐고 질문을 하가도 함.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신분열증 청년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移精變氣요법 중 하나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환자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移精變氣라는 말은 『素問, 精變氣論偏』에서 "黃帝問曰 余聞古之治病 惟其移精變氣 可祝由而已"라 하여 옛날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는데 移精變氣나 祝由만으로도 병이 낫는다고 한데에 유래한다[10] 移精變氣요법은 일명 "移情移性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의사가 각종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정신상태를 변화시키고, 병리상태를 조절하여 질병회복을 촉진하는 일종의 심리치료 방법이다. "移란 움직인다는 뜻이고, 變이란 바꾼다는 뜻으로, 모두 邪氣가 正氣를 상하지 못하게 하여 정신이 더욱 강해지고 內守하는 것이다". 移精變氣요법에는 精神轉移法이 있어 환자의 정신 활동을 질병 및 그 관념의 초점에서 기타 방면으로 전이 또는 분산하여, 이러한 정신 관념의 악성 자극을 유발하는 병리변화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질환이 회복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다. 精神轉移 치료의 방법은 매우 많은데, 의사가 언어지도요법을 활용하여 그 심리와 감정장애를 벗어나게 하는 것 외에도, 음악 가무, 琴棋書畵(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낚시, 여행, 관광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移情移性하고 정서를 편안하게 하며 理氣를 통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9].

예술치료는 창작활동을 통하여 즉 음악, 미술, 조각, 무용, 시작, 서예 등을 통하여 내적 갈등을 통찰 표현하거나 해소함으로써 치료적 효과를 얻는 기법이다[11].

본 연구는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이 매우 부족한 정신분열증 청년에게 移精變氣요법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미술활동을 적용하여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술치료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와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able Ⅱ의 HTP 그림투사검사에서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집이 사전검사와 달리 입체적으로 변하고, 지면과 맞닿아 있어 소○○환자의 현실감각이 상승했으며 막대모양의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된 점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도 집의 강도가 너무 연약하고 나무의 뿌리가 많이 강조되어 그려진 점으로 보아 자기존재감이 낮은 편이며 불안해하는 증상은 여전해 보인다.

둘째, 미술활동 과정 중, 청년의 자기표현을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자유화를 통한 미술치료 작업이 소○○의 자기 표현력을 꾸준히 상승시켰는데 이는 환자에게 지시적인 방법의 작업보다 지지적인 방법으로 상호 협동하여 작업하는 것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꼈고 자기표현을 순조롭게 시작하였다[6].

셋째, 미술활동 과정 중, 청년의 상호작용을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잘 씻지도 않고 추리닝바지에 파카차림으로 나타나서 미술치료 회기 중간에 화장실을 3-4차례씩 가던 소○○은 중기에 들어서며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를 반복하며 서서히 호전되었다. 특히 후기 만다라 수업을 하며 보조치료사들과 상호작용의 상승효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총 25회기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초기에 HTP사전검사와 자유화를 작업하였고, 중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능력을 평가하기위해 LMT와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후기에는 만다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유화를 통해 내면의 공격성이나 불안감을 자연스레 표현하고, 내성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답답함을 스스로 깨닫고 감정을 발산하며 자기표현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다. 또한 풍경구성법(LMT)을 프로그램 중간에 실시하여 환자가 주변 환경에 대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며 내적 에너지와 환경과의 통합능력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 치료사는 보조치료사 A, B와 환자 소○○이 집단만다라 작업을 함으로 환자와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상호작용을 상승시켰다.

소○○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이 어려웠던 초기와 달리 자유화를 통해 환자가 머무르고 있는 정신세계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12] 자유화를 통해 그의 정신세계가 자연스레 자극되어 정신적인 와해를 막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13]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분열증 청년을 대상으로 상호작용과 자기표현을 위해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환자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열증 청년에게 移精變氣요법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미술활동을 적용하여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HTP검사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한 집의 모양과 4~5세 수준의 단순한 인물의 모양을 그려 지나치게 단순하고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집의 구조가 입체적이고 인물의 묘사가 사전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며 필압도 약간 강해져 이로 인해 자기표현과 상호작용에 상승효과를 보았다.

둘째, 초기에는 언어적 자기표현이 거의 없고 눈동자도 허공을 바라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경직되어 자신의 주장이나 표현을 못하는 등 자존감이 낮았으나, 후기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유머감각을 발휘해 자신의 주장이나 표현을 잘하게 되었다.

셋째, 초기에는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기에는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많아졌고, 미술작업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양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투사 검사나 행동에 대한 관찰로만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더욱 다양한 객관적인 관찰과 평정도구를 추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일 사례 연구이므로 앞으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복적 미술치료 사례연구가 필요 하다.

참 고 문 헌

1. 양옥경. 지역사회 정신건강-닫힌시설에서 열린시설로. 서울:나남출판사, 1999;17(6):53-7.
2. Anthony Cohen, & Farkas M. Psychiatric Rehabilitation. 1990.
3. 손명자 역. 정신재활. 서울:성원사. 1998.
4. 김소형, 오서수성, 이은희, 김현정.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삶과 질:스트레스 대처방식, 증상,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005;24(1):73-87.
5. 김윤희, 이광자 등. 정신 간호 총론상 4판. 파주:수문사. 2001;20(2):201-4.
6. 김형희. 한 정신분열증 청년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매체로서의 미술요법적용사례. 미술치료연구. 2005;12(3):655-78.
7. 김동연.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미술치료학회편. 대구:동아문화사. 1994.15(4):110-3.
8. 황태강. 중의신경정신병학. 북경:중국의약과기출판사. 2000:272.
9.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편. 한방신경정신의학. 서울:집문당. 2005:482-7, 750-2.
10. 황의완, 김지혁. 동의정신의학. 서울:현대의학서적사. 1987:595-8.
11.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현대의학서적사. 2000:257, 263-5.
12. 이부영, 이택중. 정신 분열증 회화의 특징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83;22(1):115-27.
13. 주명진. 만성 정신 분열증 환자의 그림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반복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신경 정신의학. 1979;18(3):321-7.